

# 한국보건환경의 기둥

김민영(金旻永) 원장 - 1 -

박 창 근

〈본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

## 1. 공직 수장에 재취임한 '김민영' 원장의 열정

보통, 직장의 책임자 자리를 한번 이상 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공직의 수장(首長)을 두 번 맡는다는 것은 극히 드문 예이다. 아무리 그 자리의 책임자라고 해도, 공직 사회라는 특수성으로 보아서는 파격적인 일이다.

그 파격적인 경우가 김민영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다. 씨는 2005년 7월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11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2년의 임기 동안,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와 행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환경연구가 전문이고, 원장이라 행정에 열심히 한 것만은 아니다. 일에 임하면, 무엇이던지 열심히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천성이기에 임기를 열심히 하고, 지난 해(2006년) 12월에 임기가 끝났다.

임기가 끝나면 하리라 마음먹은 개인적인 계획도 있었다. 평생을 이룩한 대기문제에 대한 학문적인 정립을 위해, 그 분야의 일을 할 결심이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다시 제12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을 맡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고사도 하고, 고민도 했다. 그러나 결국 재취임 했다.

파격적인 인사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보건환경연구에 업적이 많고, 보건행정에 능력이 있어서만은 아닐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있었던 이유의 첫

번째는 씨의 인간적인 덕목(德目)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흰칠한 키에, 항상 웃는 얼굴 그리고 친화적인 언변은 싫어하려고 싫어할 수 없는 '김민영 trade mark'가 상당히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로 씨의 '친화력(親和力)'이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씨만큼 진지하고, 솔직하며, 정을 주는 사람도 드물다. 상대가 선배이건 후배이건, 직장과 관련된 상사이건 부하 직원이건 간에 김민영 씨는 벽을 두고 상대하지 않는다. 개방(開放)형이다. 그런 인품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세 번째는 씨의 능력이다. 1970년 건국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졸업하여, 1999년 공학박사(단국대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16기), 2005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교 국가정책과정(61기)을 수려한 정통 학력이 씨의 능력을 뒷받침한다.

끝으로 씨의 굵직한 경력이다. 1971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로 시작한 씨는 1998년 까지, 同환경연구원(폐기물과장·환경조사과장·수질보전과장·소음진동과장), 한국대기환경학회 감사·사업이사·총무이사·부회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2003년까지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

장,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세종대 지구정보과학과 겸임교수, 서울시공무원교육원·국립환경연구원 강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부장을 역임했다.

그 후,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분석과학회 부회장, 한국환경보건학회 이사, 편집이사, 편집위원장, 부회장과 감사, 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11대~12대 원장, 한국대기환경학회 고문(현), 산업자원부 공업기반기술 개발전문위원회 대기오염분과위원,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산업 평가위원, 환경부 G7환경공학기술 개발사업 평가심의위원, 국립환경연구원 대기환경오

염공정시험방법 심의위원, 12th World Clean Air & Environment Congress and Exhibition조직위원, 전시분과위원장, 환경관리공단,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및 서울메트로 환경위원회 자문위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선정평가위원, 기술표준원 산업표준심의 분석부회 가스분석(ISO/TC158.193)전문위원회위원, 대한보건협회 총무이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정책연구회 자문위원(상임운영위원), Seoul Eco Club(일사회) 정회원 등으로 있다.

〈계속〉



35개 환경단체와 15개 민간단체가 주관한 2003년도 '한국공직자 환경공로 시민의 상' 수상식장(세종문화회관)에서 수상소감을 말하는 당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부장' 시절의 김민영 현, 원장(우, 마이크 앞)과 단상 좌로부터 두 번째가 필자.